

몰입과 얽힘

-BL 드라마 「시맨틱 에러」(2022)를 둘러싼 ‘과몰입-어펙트’의 의미 고찰

김민지

서울대학교 학부대학 연수연구원

이나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 수료

목차

- 1 들어가며
- 2 팬덤과 텍스트의 얽힘(entanglement)으로서의 ‘과몰입-어펙트’
 - 2.1 ‘BL 대중화’의 성공인가? 혹은 타협인가?
 - 2.2 과몰입-어펙트의 의미: 원본 과잉의 (불)가능성에 관한 경험들
- 3 몰입을 통한 ‘과잉 텍스트’의 발산, 연루되는 팬덤
 - 3.1 정상성의 환복과 ‘에러’의 진정성
 - 3.2 ‘영업’으로서의 텍스트 (재)생산과 자기 규정
 - 3.3 과몰입의 모방-변주와 ‘허구/현실’의 경계 넘기
- 4 호모포빅한 세계와의 충돌: 예능 「도시어부」를 둘러싼 반응과 그 이면
- 5 결론을 대신하여

이 논문은 2022년 11월 26일 ‘한국문화연구학회 2022년 가을 정기 학술대회 <리콜! 문화연구-한국 문화연구에서 지식의 문제>’에서 발표한 「신유물론을 통한 페미니스트 재현학의 방향성 고찰(2): <시맨틱 에러>와 “허상”의 힘」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당시 발표자(김민지)와 토론자(이나은)로 만난 우리는 학제적 접근의 필요성을 체감하여, 이후 공동 작업을 통해 문제의식을 재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익명의 심사위원 선생님들의 논평 덕분에 논문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논문은 2018년 ‘탈BL’ 논쟁 이후 대중화에 성공한 드라마 「시맨틱 에러」(2022)에 주목함으로써, BL 드라마 팬덤의 정동(affect)을 페미니즘 문화 비평의 흐름 속에서 탐구한다. 드라마 「시맨틱 에러」의 정동은 온라인 공간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대상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과몰입’ 문화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드라마 「시맨틱 에러」는 원작 소설에 있던 ‘19금’ 요소를 삭제함으로써 ‘12세 이용가’ 콘텐츠로 탈바꿈하였는데, 이러한 개작 과정은 ‘BL의 대중화’를 둘러싼 상반된 분석을 야기할 수 있는 지점이라는 점에서 각별히 짚어볼 만하다. 가령 ‘안전한 판타지로 잘 각색되었다’는 평가는 이 작품을 BL 드라마화의 성공 사례로 보게 한다. 그런데 「시맨틱 에러」를 둘러싼 ‘과몰입’ 현상에 주목해보면, 이 드라마를 둘러싼 정동이 ‘안전한 판타지’라는 규정 바깥에서 활성화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드라마 「시맨틱 에러」 팬덤의 문화 실천을 검토하기 위해, ‘과몰입-어펙트(exmersion-affect)’라는 관점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드라마 「시맨틱 에러」를 둘러싼 정동이 서사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구조(창작자→독자/수용자/감상자)를 통해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주장한다. 이를 관계의 형성 과정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내부-작용(Intra-action)’으로 검토함으로써, 서사를 감상하는 방식이 ‘얽힘·연루(entanglement)’의 과정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고찰한다. 즉 이 연구는 드라마 「시맨틱 에러」가 ‘탈BL 담론’과 ‘안전한 판타지’ 사이의 긴장 관계에 놓여 있던 텍스트라는 점에 착안하여, ‘과몰입-어펙트’라는 조어를 통해 오늘날 드라마 감상 문화의 특성을 새롭게 설명함으로써 정동 연구의 틀을 다각화하는 것이다.

국문핵심어: 정동, 과몰입, BL, 드라마 영업, 팬덤 문화, 얽힘·연루(entanglement)

1 들어가며

2015년 ‘페미니즘 리부트’¹ 진단 이후 BL(Boys Love, 이하 ‘BL’)² 감상 문화에 대한 페미니스트 비평의 열기는 한층 더 고조되는 중이다. 이는 이른바 ‘여성 팬’으로 일컬어지는 이들의 ‘비규범적 욕망’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와 연관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페미니스트와 판타지의 관계를 고찰한 연구서 『원본 없는 판타지』를 떠올릴 수 있다. 이 책은 “기이하고 번역 불가능한 비규범적 실천들”을 살펴보겠다는 의지 하에서, ‘환상(fantasy)’의 역동성을 통해 ‘현실/재현’, ‘원본/모방’ 등의 이분법을 재배치하여 시사점을 주는데,³ BL 또한 검토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재현 혹은 모방의 문제는 페미니즘 문화 연구 등장 이래로 주요 화두 중 하나로 자리 잡았고, 특히 BL을 둘러싼 ‘팬덤’은 젠더 전복의 가능성 혹은 소수자 간의 착취 문제 등 다양한 논점을 포괄하고 있기에 여전히 논쟁적인 주제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본 연구는 2022년 2월 왓챠(watcha)를 통해 공개된 드라마 「시맨틱 에러」를 중심으로 나타난 (비)규범적 독해 양상에 주목한다. 드라마 「시맨틱 에러」는 조모임 과제로 인해 원수 같은 사이로 만난 상우와 재영이 사랑에 빠지는 과정을 담은 작품이다. 「시맨틱 에러」의 원작은 동명의 웹소설로, 이 작품은 오디오 드라마, 웹툰, 애니메이션으로 먼저 제작되었다. 다양한 미디어 형식을 통해 콘텐츠화된 것은 이 작품의 특징 중 하나로 꼽힐 수 있을 것이다. 그중에도 이 글이 특별히 ‘드라마 「시맨틱 에러」’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작품이 OTT 드라마계에서 BL 서사를 본격적으로 대중화함으로써 일종의 ‘전환

1 손희정, 「페미니즘 리부트: 한국 영화를 통해 보는 포스트-페미니즘, 그리고 그 이후」, 『문화과학』 제83호, 문화과학사, 2015, 14-16쪽.

2 BL(비엘)은 보이즈 러브(Boys' Love)의 약자로서, 상업적으로 출판된 창작물이면서 남성과 남성간의 동성애적 관계를 가볍고 밝게 다룬 작품군을 일컫는다. 해당 장르의 속성을 페미니스트 비평의 맥락에서 살펴본 대표적 논의로는 김효진, 「페미니즘의 시대, 보이즈 러브의 의미를 다시 묻다: 인터넷의 ‘탈BL’ 담론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47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9을 참조할 것.

3 오혜진 외, 『원본 없는 판타지-페미니스트 시각으로 읽는 한국 현대문학사』, 후마니타스, 2020, 8-9쪽.

점’을 마련했다고 평가받기 때문이다.⁴

무엇보다 드라마 「시맨틱 에러」의 인기는 이른바 ‘탈BL’ 논쟁 이후에 나타난 것이라는 측면에서도 특기할 만한 사례다. ‘탈BL’ 논쟁이란, 2018년경 트위터를 중심으로 온라인 담론장에 제기된 ‘BL에서 탈(脫)하자’는 주장을 둘러싼 논의들을 의미한다. 이는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활성화된 ‘탈-○○’ 운동⁵의 한 갈래로 나온 것이었다. 김효진은 이러한 ‘탈BL’론이 ‘현실과 판타지의 관계를 단순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맞닿아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⁶ 본 연구는 선행 연구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BL을 향한 다기한 정동(affect)⁷이 맞물린 현상을 살

4 이와 관련하여 “왓차에서 서비스됨과 함께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된 일은 향후 문화콘텐츠 영역에서 상당히 중요한 일종의 분기점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이가현·류호현, 「동아시아 SF X BL 서사의 트랜스-휴머니즘적 상상력과 젠더·섹슈얼리티 실험」, 『중국소설논총』 67, 한국중국소설학회, 2022, 496쪽), 이 드라마의 흥행이 “영화산업에서 젠더 편향성이 두드러졌던 과거와는 달리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기획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을 참고할 수 있다. 장민지, 「BL(Boys Love)장르와 문화적 파급력」, 『시사저널e』, 2022.3.16. <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59409>(접속일: 2025.7.14)

5 대표적으로 ‘탈코르셋 운동’이 있다.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부상한 ‘탈코르셋 운동’은 한국 사회의 여러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현재는 다소 소강 상태에 이른 듯 보인다. 그러나 ‘탈코르셋 운동’의 중단을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다층적인 운동의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흐름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로는 박현아·이나은, 「탈코르셋을 그만둔 여성들: 동일시의 정치와 물화된 얼굴을 넘어서」, 『문화와 사회』 31권 1호, 한국문화사회학회, 2023 참조. 탈-○○이라는 흐름은 주로 여성들이 향유해왔던 문화 양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또 다른 실천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점에서, 페미니즘적 실천의 조건 혹은 ‘백래시(backlash)’로 양분하여 해석될 수 없다.

6 김효진에 따르면, 당시의 ‘탈BL’ 담론은 세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기존의 보수주의와 유사한 게이혐오적 입장, 둘째, BL의 공수 관계가 현실의 성적 권력관계를 고착화한다는 비판의식, 셋째, BL이 그 장르적 속성으로 인해 여성캐릭터를 배제한다는 불만이다. 다만, 마지막 주장의 경우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는 이들의 ‘여성서사’를 향한 갈망, 즉, 여성 캐릭터를 더 많이 등장시켜달라는 요구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다소 복잡한 성격을 지닌다. 김효진, 「페미니즘의 시대, 보이즈 러브의 의미를 다시 묻다: 인터넷의 ‘탈BL’ 담론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47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9, 208-220쪽 참조.

7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논의된 정동이론 맥락에서 affect를 논할 경우에는 ‘정동’으로, 이

펴보기 위해, 「시맨틱 에러」에 주목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BL 팬덤 혹은 BL 서사의 독자/수용자/감상자⁸ 집단이 복합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이성애 중심의 규범에서 벗어나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퀴어한 실천’을 하지는 않는다.

앞서 언급하였듯, 드라마 「시맨틱 에러」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원작인 웹소설의 특징을 성공적으로 ‘드라마화’했다는 것이다. 2022년 9월, 드라마 인기에 힘입어 제작된 영화 〈시맨틱 에러: 더 무비〉(2022)의 상영 기념 ‘제작기 토크’ 행사에서도, 이러한 개작 과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씨네21』의 김소미 기자는 “안전한 판타지로서의 「시맨틱 에러」”⁹라는 특성을 호평하였다. 이는 동성애가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판타지적 세계’를 보여주고 싶었다는 감독의 연출 의도에 대한 답변이었다. 그런데 되짚어볼 점은 「시맨틱 에러」에 열광한 이들은 때로 ‘안전한 판타지’에서 이탈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는 사실이다. 이에 본 논문은 이 같은 이탈의 순간이 만들어내는 동력에 주목한다.¹⁰ 즉 본고의 목적

연구를 통해 새롭게 제안하고자 하는 개념어에 관해 서술할 때에는 비슷한 시도를 선보였던 앞선 작업에 따라 ‘어펙트’로 옮겨둔다. 관련 연구로는 권명아, 『『오징어 게임』 어펙트, 마주침의 윤리와 연결성의 에톨로지』, 『석당논총』 82호, 석당학술원, 2022 참조.

8 이후 이 논문에서는 ‘감상자’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할 것이다. 이는 문학·서사학 연구에서의 ‘독자(reader)’ 관련 논의, 미디어 문화 연구에서의 ‘수용자(audience)’ 관련 연구 동향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특정 미디어에 한정되지 않는 온라인 공간의 팬덤 문화 분석을 위함이다. ‘독자/수용자/감상자’ 간의 관계와 의미에 대해서는 지면을 달리하여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9 2022년 9월 2일 『씨네21』이 운영하는 ‘트위터 스페이스’에서 김수정 감독, 안검서 촬영 감독, 조은영 음악감독, 김혜정 왓챠 이사의 대화가 진행되었다. 다음 링크에서 다시 들을 수 있다. 「#CINE21Spaces #시맨틱에러_더무비 제작기 토크」, <https://twitter.com/ispaces/1PlKQpvqOWyxE?s=20>, 2022.9.2. (접속일: 2022.11.17)

10 이러한 작업은 ‘혐오의 대상이 사회를 문란하게 만들면 자율성을 박탈해도 된다’는 주장의 문제성을 역사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일제시기 도입된 ‘풍속통제’의 원리가 오늘날에도 잔존한다고 본 권명아의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 이는 소수자의 욕망을 ‘안전한 표현 방식’으로만 말할 수 있도록 검열해왔던 사회적 분위기를 비판적으로 되묻는다. 루인 또한 ‘음란 행위’를 폭력, 범죄로 규정하는 방식에서 발생하는 통념이 ‘보호’로 가장하여 소수자 통제에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루인, 「음란과 폭력을 다시 생각한다」. 정희진 엮음, 『양성평등에 반대한다』, 교양인, 2017; 권명아, 「수치스런 몸의 역사: 보이지 않는 역

은 「시맨틱 에러」의 감상자들이 서사의 구조적 특성이나 기획 배경 같은 창작자의 의도와는 별개로 드라마에 몰입된 상태 그 자체를 즐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러한 ‘몰입’의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누구나 콘텐츠의 수용자이면서 동시에 생산자가 된다. 이중적 위치가 일상화된 환경에서는 전통적인 ‘주체/객체’ 구분만으로는 동시대 문화 향유의 복잡성을 논할 수 없다. 더욱이 팬덤 연구가 오랫동안 남성팬 사례에 기대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¹¹ 〈시맨틱 에러〉의 대중화 동력이 온라인 기반의 여성 팬덤, 이른바 ‘여덕’의 감상 실천¹²에서 발생하고 있었다는 점은 각별하게 살펴볼 만하다. 감상과 생산을 구분하기 어려운 미디어 생태계에서 여성 팬덤의 수행성은 단순한 ‘소비’를 넘어 텍스트를 끊임없이 되쓰고 확장하는 형태로 드러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감상 실천을 ‘얽힘·연루(entanglement)’¹³의 관계 맺기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캐런 버라드(Karen Barad)가 주창한 ‘내부-작용(Intra-action)’의 비선형적 시간성을 통해 재현과 현실의 관계를 재검토한 레베카 콜먼(Rebecca Coleman)의 논의는 이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¹⁴ 요

사적 원천과 풍속 통제의 자연화」. 『민족문화사연구』 66호, 민족문화사학회·민족문화사연구소 2018.

- 11 이 같은 문제의식은 헨리 젠킨스가 *Textual Poachers* 출간 20주년을 맞아 발표한 성찰적 소감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기존의 팬덤 논의가 ‘여성팬을 충분히 포착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Henry Jenkins, “Textual Poachers Turns Twenty!”, 2012.11.26., <https://henryjenkins.org/blog/2012/11/textual-poachers-turns-twenty.html> (접속일: 2025. 11.15)
- 12 류진희는 아이들에 대한 여성 팬들의 ‘팬심’(fan心)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성 팬 세대들은 한국 대중문화 장에서 가장 유력한 소비자이나, 때로는 복잡한 실천자로서 활약하는 중”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류진희, 「젠더화된 메타서사로서 한류, 혹은 K-엔터테인먼트 비판—여성 팬, 걸 그룹, 그리고 여성 청년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6권 2호, 대중서사학회, 2020, 18쪽. 이를 참고하며, 본 논문에서는 “복잡한 실천자”가 보이는 정동의 특이성에 주목한다.
- 13 앞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entanglement의 번역어로 ‘얽힘’과 ‘연루’를 섞어 쓸 것이다. 본 연구는 양자역학적 시간성에 기대어 이뤄진 신유물론 페미니즘 재현학 연구 동향을 참고하였다. 이는 재현(물)을 둘러싼 관계를 선형적 시간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로 고찰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관계의 특성에 관하여 서술하는 경우 ‘얽힘’으로, 이를 둘러싼 행위성을 논할 경우 ‘연루’로 쓴다.

컨대 ‘얽힘·연루’는 감상자와 텍스트, 그리고 감상자들 간의 관계가 일방향적이지 않으며, 디지털 매체가 구성하는 관계망 속에서 끊임없이 변형되는 문화 실천을 살필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디지털 매체를 일상적으로 향유하는 오늘날의 대중문화 네트워크 속에서 활성화되는 정동을 살피는 데 유용한 논점을 제공할 것이다.

2 팬덤과 텍스트의 얽힘(entanglement)으로서의 ‘과몰입-어펙트’

2.1 ‘BL 대중화’의 성공인가? 혹은 타협인가?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온라인 공간에서는 종종 생물학적 성별을 근거로 ‘여성은 여성의 이익을 챙겨야’ 하며, 그렇기에 ‘남성에 이익이 돌아가면 안 된다’는 주장이 BL 팬덤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었다. BL의 드라마화와 관련하여 이 논쟁이 더욱 치열해진 이유는, 소설이나 웹툰과 달리 드라마에는 실제 배우가 필요하며, BL서사의 주인공을 연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남배(남자 배우)’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BL을 더 이상 보지 말자’는 주장, 즉 ‘탈BL’ 담론은 힘을 얻게

-
- 14** 내부-작용(intra-action)은 페미니스트 물리학자 캐런 버라드(Karen Michelle Barad)가 고안한 용어로, 상호작용(interaction)과 달리, 존재들 간의 관계를 ‘이미’ 서로 얽혀 있는 형태로 이해하게 한다. 이러한 버라드의 논의에 기대어, 영국의 미디어학자 레베카 콜먼(Rebecca Coleman)은 재현을 둘러싼 관계를 내부-작용(intra-action)으로 살핌으로써, 이미지와 실제의 관계 역시 ‘이미’ 서로 얽히고설켜 있는 것이라 주장한다. 콜먼이 말하는 ‘몸-이미지(들)’의 특성은 신유물론 페미니즘을 통해 실재하는 몸과 이미지 간의 관계성을 재고하도록 하여, Karen Barad, *Meeting the Universe Halfway: Quantum Physics and the Entanglement of Matter and Meaning*,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07.; Rebecca Coleman, “Inventive Feminist Theory: Representation, Materiality and Intensive Time,” *Women: A Cultural Review*, Vol.25, no.1, 2014, pp.27-45. ‘BL’을 둘러싼 허구와 현실의 관계가 다층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에 주목하는 본 연구에 시사점을 준다. 특히 창작자가 독자/수용자/감상자에게 ‘이미’ 영향을 받고 있거나 양자 간의 관계가 얽히고설켜 있음을 살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관계성을 통해 K-pop 미디어 문화에 나타난 여자 아이돌과 ‘여덕’의 내부-작용(intra-action) 현상을 검토한 작업으로는 김민지, 「신유물론을 통한 페미니스트 재현학의 방향성 고찰: 여자 아이돌 AOA의 <너나 해>(2019)를 중심으로」, 『과학기술학연구』 21권 3호, 한국과학기술학회, 2021 참조.

되었고, 여기에 ‘여성들의 취미를 비난하지 말라’는 반발까지 더해지면서 BL을 둘러싼 ‘(페미니즘) 내부자적 대립’¹⁵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¹⁶

드라마 「시맨틱 에러」는 탈BL 논쟁 속에서도 혹은 BL임에도 ‘불구하고’ 성공했다는 인상을 줄 정도로 두터운 팬층을 얻었지만, 팬덤이 다층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누구/무엇’의 팬인가를 규정짓기는 쉽지 않다. 「시맨틱 에러」는 웹소설을 원작에 기반하여 웹툰, 드라마, 영화로 제작되었다. 이로 인해 「시맨틱 에러」의 팬이라고 하면, 소설, 드라마, 웹툰, 그리고 이에 출연한 배우 심지어는 이들 간의 ‘관계’의 팬 혹은 이 모든 것의 팬을 의미할 수 있다. 「시맨틱 에러」의 주연 배우들이 ‘아이돌’ 그룹의 멤버라는 사실과 연관지어 보면, 이 드라마 팬덤이 배우 팬덤의 속성을 보이면서도, 아이돌 팬덤의 속성을 보이기도 하며, 한편 ‘배우들 간의 관계’에 대한 팬이 되기도 한다는 점이 확인된다. 물론 이는 「시맨틱 에러」만의 특징은 아니며, 여러 미디어를 횡단하는 수많은 장르물들, 혹은 그 외에도 넉넉한 자본을 토대로 만들어지는 대형 기획물들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맨틱 에러」 드라마화의 성공을 두고, 이것이 기존의 BL과 다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분석이 이뤄지기도 했다. 전형적인 BL의 코드를 연성화하여 로맨스를 만들고,¹⁷ 여자주인공을 남성 인물로 대체하여 ‘헤테로 서사에 기

15 2018년 이후 트위터를 중심으로 전개된 “‘탈BL’론은 한국의 BL과 후조시 문화에 대한 과거와는 다른, 내부자적 관점에 의한 비판으로서 제기됐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김효진, 「보이즈 러브의 문화정치와 ‘여성서사’의 발명-‘야오이’의 수용부터 ‘탈BL’ 논쟁까지」, 오혜진 외, 『원본 없는 판타지-페미니스트 시각으로 읽는 한국 현대문화사』, 후마니타스, 2020, 382쪽.

16 BL 감상 문화 실천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젠더 폭력을 무시할 수 있는 장르’라는 분석이 이뤄지기도 했다. BL이 여성들에게 일종의 ‘대안적 포르노그래피’로서 기능한다는 점(김소원), 헤테로-로맨틱 서사가 불가피하게 상기시키는 현실 연애에서의 사회적 규범들을 소거한 서사로 여성들에게 쾌락과 몰입을 제공해왔다는 점(장민지)이 그 특성으로 지목되었다. 김소원, 「BL 만화의 탈19금과 대중화 전략: 여성 독자 심리와 일본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63호, 인문콘텐츠학회, 2021, 5쪽; 장민지, 「서브텍스트 활성화를 통한 BL(Boys’ Love)콘텐츠 대중화 전략: 왓챠 오리지널 〈시맨틱 에러〉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2권 11호, 한국콘텐츠학회, 2022, 717쪽.

17 송화·박기수, 「BL 웹소설의 드라마 전환 전략 연구: 왓챠 드라마 〈시맨틱 에러〉를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70호, 인문콘텐츠학회, 2023, 119쪽.

반한 순정만화 문법’을 적용하되 남녀의 구분을 없앴으로써 ‘정체성 전환’을 경험하게 한다는 점¹⁸이 드라마 「시맨틱 에러」의 인기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이 같은 시각은 「시맨틱 에러」의 성공을 낙관적으로 보는 태도에 기인한다.

한편, 김도훈은 영화 <후회하지 않아>(2006)에 호응했던 BL 팬덤의 존재를 상기시키며 「시맨틱 에러」의 흥행 배경을 ‘퀴어 서사’와의 관계 속에서 분석한다. 여기서 ‘퀴어 서사’와 BL의 차이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곤경이 눈길을 끈다. 그는 “대부분의 비엘물에는 실제 성소수자들이 겪는 편견과 혐오가 제거되어 있”기에, “진지한 퀴어 서사”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BL서사가 문제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시맨틱 에러」가 보여준 “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판타지”가 ‘퀴어 서사’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¹⁹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대중화’의 특성을 원작과의 비교를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드라마 「시맨틱 에러」’와 원작 ‘웹소설 「시맨틱 에러」’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은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웹소설 「시맨틱 에러」’ 줄거리 소개 中	‘드라마 「시맨틱 에러」’
“잔말 필요 없고 이거나 대답해 봐. 너 어제 썼어, 안 썼어?” “제 색욕을 부정할 생각 없어요. 선배와 있으면 종종 발기해요.” “...단어 선택 봐라.” “그렇다고 뭐가 달라져요? 선배의 Y성염색체가 X로 바뀔 확률은 0%잖아요.”	성큼 상우에게 다가가는 재영, 상우의 가슴 위에 손을 올린다. 재영 다 됐고. 너 나 볼 때, 여기 뛰어, 안 뛰어? 상우 (흡- 숨 참고, 손 내치며) 안 뛰면 죽거든요. 재영 누가 생물학 강의 듣고 싶대? 상우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좀 떨어져 있으면... 괜찮아질 거예요.²⁰

18 김세연, 「BL물 속 트랜스 아이덴티티, 그리고 성장-〈시맨틱 에러〉」, 『쿨투라』 109호, 2023, 68-71쪽.

19 김도훈, 「양지로 나온 ‘BL’...퀴어 서사 대중화, 그 거대한 변화의 시작」, 『한겨레』, 2022.3.31., 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036941.html, (접속일: 2025.7.14)

20 제이선, 『시맨틱 에러 대본집』, blackD(블랙디), 2022, 264쪽.

위의 같이, ‘드라마 「시맨틱 에러」’는 ‘12세 이상 시청가’의 서사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원작에 있던 “발기”와 같은 특정한 ‘몸-이미지’를 삭제한다. 원작 ‘웹소설 「시맨틱 에러」’의 특징 중 하나인 ‘19금’ 장면을 덜어내고, 그 자리에 ‘누구나 공감할 만한 감정’ 묘사를 배치한 것이다.

‘드라마 「시맨틱 에러」’의 김수정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웹소설 「시맨틱 에러」’를 ‘드라마 「시맨틱 에러」’로 바꾸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고민한 부분이 ‘수위’의 문제였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19세를 12세로 낮추는 과정이 너무 길었다”고 하는데, 이는 원작에서 두 인물이 ‘섹스 파트너’로 관계를 맺기 시작하다 보니, 그러한 ‘19금 요소’를 삭제하되 개연성도 확보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드라마 「시맨틱 에러」는 상우에게 ‘모태 솔로’ 설정을 부여한다. 이는 상우가 타인에게 느끼는 애정 자체에 익숙치 않은 인물임을 보여줌으로써 재영을 향한 감정을 인정하는 데 스스로 갈등을 느끼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게 된다.²¹

전술하였듯, 「시맨틱 에러」는 BL 장르의 장점과 한계를 ‘안전한 판타지’로 재구성하는 데 성공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BL이 가진 정체성 실험의 가능성과 쿼어한 성애 감각은 기존의 이성애 로맨스와 구분되는 것으로 이해되곤 하다. BL은 이성애 중심의 성 각본을 전복하거나 탈주하려는 징후로 이해되었고, 남성 간 서사를 통해 자기 대상화 없이 감정이입할 수 있는 경로를 구축하며 젠더 질서를 재배열한 듯 보였다. 그런데 이 작품은 이른바 ‘쿼어 서사’를 다시 ‘소녀 취향(12금)’의 이성애 로맨스적 구조로 바꾸는 전략을 취했고, 그러한 전략이 성공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그러나 이 드라마의 성공을 ‘산업적 전략’의 결과로만 환원할 수 있는가? 이에 본 논문은 「시맨틱 에러」의 성공을 단순히 ‘안전한 판타지’의 구현으로 이해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감상자들이 ‘안전한 판타지’를 비껴나가고 가지고 놀며 만들어낸 ‘과몰입’ 실천²²에 주목하여 이 드라마의 성공이 어

21 노이슬, 「[인터뷰①] ‘시맨틱 에러’ 김수정 감독 “박서함-박재찬 만난 건 행운이었다”」, 『SWTV』, 2022.03.11., <https://swtvnews.com/news/newview.php?ncode=1065552414441347> (접속일: 2025.10.11)

22 BL을 감상한다는 것은 쿼어한 성애를 어떤 형태로든 경험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이성애 로맨스 감상 과정과는 변별된다. 가령 오혜진은 한국 사회에서의 BL 독서 문화에 대해 ‘1980~1990년대생 여성들의 문화 전략’으로 해석하기도 했는데, 이성애 중심의 젠더 질

떻게 가능했는지를 다시 답해보고자 한다.

2.2 과몰입-어펙트의 의미: 원본 과잉의 (불)가능성에 관한 경험들

앞서 논하였듯, BL을 읽는 이들에 대한 입장은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는 이들 사이에서도 쉽게 통일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합의’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BL 물을 둘러싼 행위자들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서술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모두가 콘텐츠의 수용자이자 생산자이다. 따라서 ‘주체/객체’에 대한 기존의 구분법으로는 동시대 문화 향유의 특성을 명확히 설명하기 불가능하다. 「시맨틱 에러」 감상 문화의 특이점 역시 매체적 특성을 염두에 두고 검토되어야 한다.

오늘날 온라인 팬덤 문화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현 중 하나인 ‘과몰입²³’은 팬덤 특유의 정동(affect)이자 실천으로, 특히 한국 팬덤 문화에서 ‘좋아하는 대상에 깊게 빠져든 상태’를 의미한다. 한편, ‘과몰입’은 특정 대상을 ‘단순히 좋아한다’는 상태를 넘어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과몰입한다’ 혹은 ‘과몰입하지마라’ 같은 용법은 이 표현이 비이성적일 정도의 몰입을 뜻하며, 제지를 요할 정도로 ‘보통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삼고 있음을 드러낸다.

특기할 만한 점은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과몰입’이라고 표현하는 이들, 즉, ‘과몰입자’ 역시 스스로 상태의 ‘과함’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함’을 말하기 위해서는 ‘선을 넘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과몰입자들은 ‘정상 규범’이라는 적정 수준의 몰입으로 그 선을 긋고, 자신이 그 선을 넘고 있음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논하기 위해 ‘과몰입-어펙트(exmersion-affect)’

서를 되묻는 시도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오혜진, 『지극히 문학적인 취향』, 오월의 봄, 2019, 372-374쪽.

23 팬덤 맥락에서 ‘과몰입’을 다룬 기존 연구에서는 “연출된 세계관을 현실로 확장하여 생각”하는 것을 과몰입의 특징으로 지적하였다. 이나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유사-초점화된 상호작용과 친밀감의 의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75쪽. 이를 참고하되, 본 연구에서는 드라마 「시맨틱 에러」를 둘러싼 팬덤이 주도적으로 허구와 현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과정을 오락적 요소로 활용한다는 측면에 주목함으로써 ‘과몰입’을 논한다.

라는 용어를 제안한다. 여기서 “exmersion”은 몰입(immersion)과 과잉(excess)의 합성어로, ‘과하게 몰입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과몰입’은 ‘하는 것’이기보다 해일처럼 닥치는 것, 당하는 것, 오는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에 빠져드는 과정과 관련된다. ‘과몰입’을 정동(affect) 이론의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과몰입’에 얽힌 개개인은 그 정도를 조정하거나 의도 대로 수행할 수 없다. 몰입이 적정 수위를 넘어섰음을 스스로 인지하나, 그럼에도 이를 ‘통제할 수 없음’이 곧 ‘과몰입-어펙트’이다. ‘과하다’는 것은 텍스트에 대한 감정이 지나침을 지적하는 표현이어야 하지만, 이것이 스스로의 상태를 표현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과잉을 향한 이끌림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강화시킴으로써 원텍스트를, 그리고 원텍스트와의 관계를 진정한 것으로 느끼게 만든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논하는 ‘과몰입-어펙트’란 특정 콘텐츠의 감상자들이 스스로 ‘과하다’고 느끼는 상태를 경험하고 인지하면서도, 계속해서 그러한 ‘과함’을 적극적으로 표하는 상태를 지칭한다.

이러한 ‘과몰입-어펙트’의 특성을 고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관련 용어를 몇 단계로 구분한다. 먼저, 감상자들이 과몰입하는 대상인 원텍스트를 ‘기반텍스트(base text)’라고 이름 붙이고자 한다. 기반텍스트는 그 자체로 너무 크고 강력하여 주변의 다른 텍스트들을 밀어내거나 잠식한다. 과몰입자들은 기반텍스트에 뿌리내리고 다른 텍스트들을 밀어낸다. 동시에 기반텍스트는 새로운 독해(혹은 창작)를 가능하게도, 혹은 불가능하게도 만든다. 이들은 텍스트 외부에 실재하는 요소와 연관지어 자신의 감상을 ‘2차 창작물’로 적극 생산한다. 본고는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나오는 텍스트들을 ‘과잉텍스트(over text)’라 지칭한다.

‘과몰입’은 단순히 현실과 허구의 구분을 의식하고 이를 넘어서는 상태에 대한 것이 아니다. 차라리 이것은 텍스트에 대한 몰입과 몰입해있지 않은 상태 간의 구분을 강하게 의식하는 편에 가깝다. 과몰입자들은 특정 텍스트에 뿌리내린 채 그 텍스트를 통해 세계를 읽어내면서, 동시에 세계가 이전과는 다른 층위로 해석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즉 ‘과몰입-어펙트’는 환상과 현실의 단순한 뒤섞임 같은 경험이 아니라, 특정 콘텐츠가 기반텍스트(base text)로 물화되면서 다른 맥락들(contexts)을 끌어당기고 접합하는 과정 그 자체인 셈이다. 이어지는 장

에서는 ‘기반텍스트’와 ‘과잉텍스트’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드라마 「시맨틱 에러」 팬덤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과몰입-어펙트’의 출현 양상을 살펴보겠다.

3 몰입을 통한 ‘과잉 텍스트’의 발산, 연루되는 팬덤

3.1 정상성의 환복과 ‘에러’의 진정성

「시맨틱 에러」는 ‘체크서츠’를 즐겨 입으며 규칙을 중시하는 ‘공대생’ 추상우의 삶에 ‘빨간 운동복’을 입고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일삼는 ‘미대생’ 장재영이 침입하게 되는 이야기로, 두 인물이 서로에게 ‘에러’로 작용하고 이 ‘에러’가 사랑의 감정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그린다.

드라마 도입부에서 ‘체크서츠’는 재영과 상우의 관계를 맺게 하는 촉매 역할을 한다. 재영은 상우가 조별 과제 발표 시간에 자신의 이름을 누락한 일로 해당 과목에서 F학점을 받아 졸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체크서츠’를 입고 다닌다는 상우를 찾아 다닌다. 그런데 막상 컴퓨터공학과 건물에 도착해 보니, 강의실에서 나오는 모든 ‘공대생’이 체크무늬 셔츠를 걸치고 있어 재영은 당황한다. 이 장면은, “공대생은 체크셔츠만 입는다”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공대생=체크셔츠’라는 유머코드를 이용해 연출된 장면이다. 김수정 감독은 셔츠를 입은 공대 학생들이 연이어 나타나는 장면이나 ‘보노보노 PPT’ 등 ‘밈(meme)’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했음을 밝힌 바 있다.²⁴ 앞서 논하였듯, 오늘날 온라인 감상 문화 속에서 드라마를 둘러싼 감상의 과정은 어느 한쪽이 원인이고, 어느 한쪽이 결과라고 규정짓기 어려운 상태다. 창작과 수용의 관계는 더 이상 선형적 시간관에 따라 파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시맨틱 에러」의 ‘체크셔츠’는 이러한 동시대 드라마 문화의 얽히고설킨 관계를 확인시켜 주는 사례인 셈이다.

온라인 공간에서 흔히 쓰이는 ‘혐관(嫌關)’은 서로 싫어하는 마음(嫌)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관계(關)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드라마 「시맨틱 에러」의 로맨스

24 김나연, 「‘시맨틱 에러’ 감독 “BL 드라마, 쉬운 접근 위해 노력했죠”[★FULL인터뷰]」, 『스타뉴스』, 2022.3.13., <https://www.starnewskorea.com/stview.php?no=2022030818264354456> (접속일: 2025.11.14)

서사 역시 ‘협관’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때 상우의 ‘체크셔츠’는 재영과의 첫 만남을 극적으로 만드는 장치일 뿐 아니라, 두 사람이 맺게 되는 ‘협관’ 코드를 시각적으로 구현한다. 재영이 자신의 졸업을 방해한 상우에게 복수하기 위해, 상우 앞에 ‘빨간 운동복’을 입고 등장하여 그를 불편하게 하는 장면은 이러한 긴장을 극대화한다. 결국 ‘체크셔츠’와 ‘빨간 운동복’은 서로를 어긋나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관계를 전개시키는 짝패로 기능한다.

한편, 이 대비는 단순히 ‘옷’ 이미지에 머무르지 않는다. BL 장르가 통상 현실의 동성애 혐오를 비가시적으로 만드는 ‘판타지’에 머문다는 지적을 염두에 두고, 「시맨틱 에러」의 세계에서 ‘동성애가 문제시되지 않는다’는 점을 되짚어보자.²⁵ 상우와 재영에게 동성 간 사랑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으며, 그보다는 나와 다른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상대가 싫고 거슬릴 뿐이다.

두 인물이 ‘다른 옷’을 입어보는 4화의 ‘막장 멜로극’²⁶ 준비 과정은 이러한 관계성의 연장선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상우와 재영은 또 다른 교양 수업에서 함께 연극을 준비하게 된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창작한 연극에서도 인물 간 동성애는 ‘금기’로 다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연극의 줄거리는 ‘사랑하는 사이지만 뒤늦게 서로가 형제임을 알게 되는 이야기’로 요약되는데, 상우와 재영이 자신들의 연극을 ‘막장 멜로’라고 칭하는 이유는 “형제”라는 대목보다도 ‘사랑하지만 혈연 관계였다’는 통속극의 서사 구조 때문이다. 즉 “형제”라는 설정에 담긴 동성애 관계는 이들에게 그다지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묘사되는 셈이다. 따라서 이들의 멜로극에서는 “니가 남자건 외계인이건 이제 상관 안 해”²⁷ 같

25 선행 연구에서도 웹소설 「시맨틱 에러」에서 가족에게 ‘남자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들키는 대목이 확인되지만, 드라마 전환 과정에서는 이 부분이 생략된 것에 주목한 바 있다. 송화·박기수, 「BL 웹소설의 드라마 전환 전략 연구: 왓차 드라마 <시맨틱 에러>를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70호, 인문콘텐츠학회, 2023, 115쪽.

26 두 사람이 연극 직후 마음의 동요를 경험하는 부분은 멜로드라마가 기본적으로 ‘몸의 서사’로 출발했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한데, 역사적으로 멜로드라마는 몸을 통한 과잉적 표현에 의의를 두고 등장한 양식이었기 때문이다. 피터 브룩스, 이승희·이혜령·최승연 옮김, 『멜로드라마적 상상력-발자크, 헨리 제임스, 멜로드라마, 그리고 과잉의 양식』, 소명출판, 2013 참조.

27 오늘날 널리 쓰이는 ‘밈(meme)’ 중 하나로 드라마 「커피프린스」의 가장 유명한 대사로 꼽

은 대사가 불필요하다.

‘효율’을 강조하는 상우는 융통성 없는 성격으로 인해 재영과 엮이게 되고, 이 만남은 두 인물에게 ‘에러의 전환’으로 작용한다. 상우는 연애를 “매체에서 떠도는 감정적 허상”이며 “한 쌍의 남녀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정식 프로그램의 체험판”이라고 말하지만, 연극을 연습하는 과정에서 이 정의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재영이 신경 쓰이기 때문이다. 연극이라는 허구와 연출의 공간이 상우의 논리를 흔들고, 그가 고수해온 ‘정상성’의 프레임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다. 상우가 체크셔츠를 벗고 다른 옷을 입는 장면은 이러한 균열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으로, 이 에러를 통해 상우는 감정적 전환에 돌입하게 된다.

BL물이 현실의 동성애 혐오를 누락시켜온 것처럼 「시맨틱 에러」속 연극에서도 동성애는 금기시되지 않지만, 바로 그 ‘오류’로 인해 상우는 오히려 ‘에러’를 더 크게 감각하게 된다. 「시맨틱 에러」는 무엇이 ‘정식’이고 무엇이 ‘허상’인가를 고민하게 함으로써 현실의 ‘정상성’을 되묻는 자리를 마련한다. 상우에게 ‘에러’는 그가 신뢰해온 규범적 세계가 깨지는 순간을 의미한다. ‘체크셔츠’는 상우가 지켜온 합리적 세계 혹은 ‘정상성’의 기표로, 이 기표는 연극을 통해 관계를 재설정하는 과정을 거치며 분열된다. 연극을 통해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오류인가’를 질문하게 되는 것이다.²⁸

3.2 ‘영업’으로서의 텍스트 (재)생산과 자기 규정

앞서 살펴본 붉은 에러와 체크셔츠의 교차, 연극에서의 환복이라는 서사가 드러

한다. 극 중 남장여자 주인공 은찬(윤은혜 분)에게 남자 주인공 한결(공유 분)이 고백하는 장면에서 확인되는데, 이는 퀴어한 관계를 tv 드라마에 본격적으로 제시한 사례이지만, 동시에 동성애를 이성애 로맨스 드라마의 서사적 장치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일종의 ‘퀴어베이팅(Queerbaiting)’ 사례로도 볼 수 있다.

28 이렇듯 「시맨틱 에러」의 인물들은 ‘극 중 극’을 통해 허상과 현실의 관계를 돌아보게 되는데, 퀴어 이론사에서 수행성이 지니는 의미를 고려해 보면, 이 연극의 효과는 더욱 의미심장하게 검토될 만하다. 이들은 연극을 수행하며 현실의 ‘이성애 각본’을 되돌아보고, 이로써 드라마는 이 ‘각본’을 ‘에러’의 교점으로 삼아 규범에서 벗어나는 인물들의 모습을 담아낸다.

마를 완결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감상자들의 독해가 멈추는 것은 아니다. 과몰입한 이들에게, 드라마는 ‘엔딩’에서 다시 시작된다. 이들은 몰입 대상인 ‘기반텍스트’를 바탕으로 개별적 해석을 덧붙이고 ‘과잉텍스트’를 만들어 낸다. 이를테면 이들은 드라마가 보여준 중심 서사에 다양한 상상력을 덧붙이고, 배우들 간의 관계를 재구성한다. ‘과몰입’은 ‘기반텍스트’에 근거해 감상자의 해석을 덧붙여 새로운 세계를 조형하는 정동인 것이다.

‘과잉텍스트’의 특성을 논하기 위해, ‘영업’의 의미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 흔히 쓰이는 ‘영업’은 자신이 경험하거나 좋아하는 무언가를 다른 이들도 관심을 갖도록 그 특징을 알리고 추천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콘텐츠 감상 문화에 초점을 맞춰보면, 자신이 호감을 느끼는 콘텐츠를 추천하는 과정을 ‘영업한다’고 표현하곤 한다.²⁹ 아이돌을 둘러싼 ‘영업’ 행위는 ‘덕질 문화’나 ‘팬덤 문화’와 매우 긴밀하게 얽혀있는 실천 양상이라 할 수 있다.³⁰

드라마 「시맨틱 에러」의 감상자들의 ‘영업’ 행위는 주로 ‘여성 유저’가 활동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여초 커뮤니티’나, ‘트위터’ 등 온라인 공간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³¹ 온라인 공간에서는 참여자의 수가 많거나 혹은 의견이

29 ‘영업’ 행위는 그 단어에서 보이듯 팬덤 문화의 ‘소비주의’, ‘노동’ 관련 논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팬덤 문화 이면에 놓인 상업화 문제, 즉 놀이노동이 어떻게 자본에 영합하여 경제적 가치를 얻는지, 행위자들은 어떻게 놀이와 노동을 이를 경계짓는가에 대해서는 강신규·이준형, 「생산과 소비 사이, 놀이와 노동 사이〈프로듀스 48〉과 팬덤의 재구성」, 『한국언론학보』 63권 5호, 한국언론학회, 2019 참조.

‘영업’이란 단어는 마치 영업직의 영업처럼 정성껏 이것을 사야만 하는, 즉,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득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놀이와 노동의 합성어인 ‘놀동’이라는 상반된 개념이 있듯 이들의 ‘영업’에는 실제로 영업의 의무나 경제적 이득은 전혀 없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흥미롭게도 이 지점에서 ‘영업’은 진정성을 획득하게 된다. 즉, ‘영업’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자본주의적 측면은, 오히려 경제적 이득에 반하는 팬덤의 ‘영업’ 행위에 내재된 진정성을 역설적으로 강조한다.

30 이대원, 「담화와 정동의 공동체로서의 아이돌 팬덤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31 OTT 제작 드라마 「시맨틱 에러」는 이러한 정동, 즉, ‘과몰입-어펙트’에 기반한 ‘영업’을 활발히 하기 적절한 매체적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OTT 드라마는 시청하는 이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장면부터 감상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때문에 특정 장면에 대한 개인적 감상을 ‘트위터(현 ‘X’, 본 논문에서는 ‘트위터’로 지칭)’, 커뮤니티 등

늘어날수록 그 반응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되고, 그 흐름 속에서 주체와 객체 간의 경계는 흐트러지게 된다. 이들은 몰입 대상에 ‘정동되며’, ‘정동시킨다’. 이 같은 ‘정동됨/시킴’의 관계는 내부-작용하는(intra-acting) 형태로 어느 쪽이 먼저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시맨틱 에러」의 감상자들은 배우들이 ‘원래’ 얼마나 친한 사이이고 서로를 얼마나 “귀여워하는지”를 영업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유튜브 클립으로 만들기도 했다. 감상자들은 ‘기반텍스트’가 어떻게 독해될 때 매력적으로 보일지 일종의 ‘해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로 하여금 배우들의 관계라는 ‘현실’을 자신만의 관점에서 독해하고, 그리고 그 독해를 다시 ‘기반텍스트’와 결합하기도 한다. 이들은 접속 가능한 여러 텍스트들을 넘나들면서 일종의 ‘사이 공간(in-between)’에서 ‘과몰입’ 상태에 진입한다. 이들은 주어진 판타지 너머를 상삼함으로써 ‘진정성’을 찾으려는 한편, 그 ‘진정성’을 통해 판타지를 새롭게 구현한다. 이 과정은 자신이 좋아하는 드라마를 다른 이들에게 ‘영업’하려는 목적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즉 동시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인되는 ‘영업’ 문화는 ‘과몰입-어펙트’의 발현 양상 중 하나다.

「시맨틱 에러」에 과몰입한 이들은 ‘영업’ 과정에서 등장인물의 서사뿐 아니라 실제 배우들 간의 관계를 드라마를 봐야 하는 이유로 제시했다. 물론 이러한 ‘관계성’의 강조는 드라마 팬덤, 아이돌 팬덤 등 여러 분야에서 확인되는 문화로,³² 실제 관계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이들이 서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이 관계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해석한 것에 가깝다. ‘과몰입-어펙트’를 통해 ‘과잉텍스트’가 생성된 셈이다.

드라마 「시맨틱 에러」에 얹힌 ‘과잉텍스트’의 대표적인 사례로 “드에러 시즌2 소취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시리즈³³를 살펴볼 수 있다. 이 시리즈에

온라인 공간에서 공유하는 것이 수월하고, 이러한 과정은 오늘날 하나의 감상 문화로 자리 잡았다.

32 아이돌 팬덤 문화에서 여성들이 느끼는 ‘관계성’의 의미에 대해서는 강다겸, 「여성들의 아이돌 RPS 향유와 머뭇거림의 정동」,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5, 29쪽.

33 드라마 「시맨틱 에러」의 후속작 ‘소취(‘소원 성취’의 줄임말)’를 위한 시리즈 글로, 팬창작 콘텐츠가 주를 이루는 블로그서비스 ‘포스타입(주로 ‘포타’로 지칭되는 온라인 공간)’

서 가장 널리 알려진 글은 ‘(밀)키스 운명론’이다. 해당 글은 작중 상우와 재영의 서사는 물론, 이를 연기한 배우 박서함과 박재찬의 리허설 과정, 텍스트 밖에서 배우들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이것이 어떻게 “운명”에 가까운지 논한다. 박서함이 음료수를 사주고 싶은 아이돌로 박재찬을 지목하고, 그 음료로 밀키스를 골랐고, 이후 이들이 키스를 나누는 BL 드라마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이 운명이라는 것이다. “밀키스 사주는 사이에서 키스하게 생겼다”는 ‘(밀)키스 운명론’은 「시맨틱 에러」의 과몰입자가 만든 ‘영업용 과잉텍스트’로, 드라마 「시맨틱 에러」라는 ‘기반텍스트’를 넘어 이들의 과거 인터뷰와 브이로그, 공동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 등을 오가며 ‘과한 이야기’를 만든다. 이 ‘(밀)키스 운명론’은 팬덤 내에서 반복될 뿐만 아니라 이후 인터뷰나 코멘터리, 스핀오프 예능 등에서 꾸준히 언급되며, 역으로 ‘공식’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이를테면 배우들은 팬들이 자신들의 관계를 ‘운명’으로 여김을 인지하고 있었고, 제작진에서 공식적으로 제작한 콘텐츠에서 이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배우들은 서로를 ‘평생 친구’나 ‘분신’으로 생각한다고 하며 ‘(밀)키스 운명론’을 수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감상자들이 이들의 관계를 ‘운명’으로 상상하는 데 힘을 보탰다.³⁴ 이처럼 이들이 경험하는 텍스트는 드라마나 그 대본에 한정되지 않는다.

에 업로드 되어있다. 2025년 7월 12일 현재 17개의 글이 포스팅되어있으며, 팔로워는 1828명이다. 해당 채널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박서함X박재찬 두 사람을 너무 좋아합니다♥] 시맨틱에러 드라마+본체 활동 전부 앓는 채널+알페스합니다. 즉, 이 시리즈 글에는 「시맨틱 에러」 드라마 뿐만 아니라 배우들(‘본체’), 아이돌 활동이나 다른 연기, 생활을 포함한 배우들의 여타 활동, 배우들의 ‘관계성’을 ‘앓는(‘과몰입’의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글이 포함된다. 포요, 「드에러 시즌2 소취 기원」, <https://www.postype.com/@clean193177> (접속일: 2025.11.14)

- 34** BL드라마의 실패 요인으로서는 대중적 인기를 확보하기 어려운 장르 특성상 저예산으로 제작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지목된다. 팬들이 주로 문제 삼는 지점은 출연 배우들 간의 ‘케미가 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늘날 온라인 공간에서 쓰이는 ‘케미’는 ‘케미스트리’의 줄임말로, 인물 간의 어울림을 의미한다. 특히 배우들 간의 외모가 서로 잘 어울리는 것뿐만 아니라 배우들이 실제로도 서로를 사랑한다는, 그래서 드라마 속 커플이 현실에 ‘실재한다’는 느낌을 줄 때 강화된다. 「시맨틱 에러」의 경우, 배우들이 BL의 장르적 특성을 ‘존중’한다는 것, 그리고 서로에 대해 친밀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드러낸 것이 이 실재감을 증폭시켰다.

한편, 그렇다고 해서 이 과정이 배우들의 인터뷰와 SNS 등 외부의 텍스트를 읽는 일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텍스트들 사이를 유영하며 배우들, 배우들의 관계, 배우들의 관계에 덧입혀지는 대본, 대본을 소화하는 배우들의 연출³⁵, 연출이 빚는 관계성, 관계성으로 이어지는 ‘이후 관계’에 대한 기대들을 껴넣으로써 ‘영업용 과잉텍스트’ 같은 새로운 텍스트를 생성한다. 이 텍스트들은 때로 다시 그 실제 배우나 프로그램 안으로 스미거나 공인되고, 이 텍스트들은 다시금 감상자들의 정동을 확산시키는 촉매가 된다. 이들은 텍스트 횡단자로서, 텍스트들을 엮어 다른 텍스트를 또 다시 만들고 정동된다.

이러한 활동은 종종 특정 텍스트를 ‘과몰입’임을 상기시키는 경고문과 함께 수행된다. 예를 들어, 배우 박재찬이 언급한 특정 숫자들을 두 배우의 관계성을 입증³⁶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글이라 하더라도, 글의 하단에는 “집착으로 해석된 숫자풀이(광기 혹은 끼워맞추기)”나 “[*주의: 모두 추측일 뿐/팩트 아님]”과 같은 문구가 덧붙는다. 이때 팬들이 궁극적으로 제시하려는 것은 ‘진정성’에 가깝지만, 동시에 그들은 이 행위를 ‘놀이’로 제한한다. 이로써 자신의 몰입을 과도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요컨대 <시맨틱 에러>의 팬덤은 관계의 진정성과 그 리얼리티(reality)를 강조하는 과정에서도, 스스로의 행위를 ‘과몰입’의 범주에 한정하는 것, 즉, 사실이 아닐 수 있는 일로 끊임없이 재정의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실천은 BL에 얹힌 ‘관계성’을 비교적 부담 없이 소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과몰입’이라는 자기 규정은 이들이 ‘과잉텍스트’의 진정성을 신봉하면서도 동시에 이러한 독해의 과정을 놀이의 범주에 포함함으로써 일종의 ‘거리 두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35 감상자들은 8화에서의 입맞춤 장면이 ‘배우들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점을 중요한 부분으로 지목한다. 사전에 연출되지 않은 요소야말로 ‘진정성’ 있는 대목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36 이를테면 해당 글에서는 배우 박재찬이 팬사인회에서 무의식적으로 고른 숫자 93이 상대 배우 박서함의 키 193cm을 의미한다고 본다. 포요, 「드레러 시즌2 소취 기원: 9장. 숫자의 의미」, <https://www.postype.com/@clean193177/post/12963125> (접속일: 2025.11.14)

3.3 과몰입의 모방-변주와 ‘허구/현실’의 경계 넘기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과잉텍스트’를 ‘기반텍스트’를 제공한 제작진 측에서 역으로 참고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드라마 「시맨틱 에러」의 성공, 이른바 ‘시맨틱 붐’ 이후 왓챠 공식 유튜브 채널에 추가로 공개된 추상우의 ‘페이크 브이로그(fake vlog)’는 실상 팬덤이 제작하는 ‘2차 창작물’ 형태에 가깝다.³⁷ 이 페이크 브이로그는 유튜브(YouTube)에 업로드되었다는 점, 극중 인물인 추상우의 실제 삶을 담은 듯한 느낌을 연출한다는 점에서 제작사에서 공개한 ‘공식 콘텐츠’이되 ‘과몰입자’의 실천을 흉내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브이로그’는 대표적인 유튜브 콘텐츠 형식의 하나다.³⁹ 브이로그의 플랫폼이라 할 수 있는 유튜브를 활

37 이 영상은 2025년 6월 기준 조회수 29만 회를 달성하였다. 왓챠, 「추상우 Vlog | 극형 인간 컴공과 추상우의 코딩 가득한 하루 (근데 이제 쿡방, 먹방, 레고 조립을 겹들인) | 시맨틱 에러 | 왓챠」, <https://youtu.be/CRTUVowGP1E> (접속일: 2025.6.28.) 이후 인용한 댓글들은 모두 이 영상의 댓글란에서 가져온 것이다.

38 공식 제작사 ‘왓챠’가 제작한 이 브이로그는 드라마 안팎 인물 간 ‘관계성’을 강조하는 서브텍스트로서 이용자의 몰입을 유도하는 장치로 해석되었다. 장민지, 「서브텍스트 활성화를 통한 BL(Boys’ Love)콘텐츠 대중화 전략: 왓챠 오리지널 <시맨틱 에러>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2권 11호, 한국콘텐츠학회, 2022 참조. 그러나 이용자들은 이미 배우를 매개로 드라마의 인물과 현실의 ‘관계성’을 의도적으로 뒤섞으며 과몰입을 실천해왔다는 점에서, 이 브이로그는 몰입을 새로이 ‘유도’했다기보다 기존의 과몰입을 모방한 것으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 다만 과몰입은 텍스트의 공인에서 외려 어긋나는 텍스트와 현실을 엮는 실천에 있다는 점에서, 공식 제작자를 통해 ‘관계성’이 연출되고 확정되는 순간 오히려 과몰입이 약화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즉 제작사는 팬덤의 과몰입 실천을 상업화했지만, 바로 그 상업화가 과몰입을 정형화하며 그 긴장을 소거할 위험 역시 내포하고 있다.

39 오늘날 개개인의 일상을 담아내는 대표적인 콘텐츠로 자리 잡은 브이로그의 가치는 흔히 ‘진정성’으로 결정된다고 여겨진다. 이에 대해서는 김예란, 「플랫폼 생산자와 일상성: 일상 브이로거의 삶과 노동」, 『한국언론정보학회』 101호, 한국언론정보학회, 2020, 180쪽 참조. 과거 ‘페이크 다큐멘터리(fake documentary)’, ‘모큐멘터리(mockumentary)’가 유행하였듯이 최근 유튜브에는 ‘페이크 브이로그’ 장르가 인기몰이 중이다. 페이크 브이로그는 ‘진정성’과 ‘허구성’을 오간다. 실재하는 인간 유형을 극도로 과장하는 페이크 브이로그는, 진정성을 모작하는 방식으로 진정성을 폄훼하는 동시에 핏진성을 취한다. 과장된 진정성으로 하여금 허구를 상연하고, 이것으로 하여금 진정성이 재조명된다.

용한 것은 콘텐츠의 리얼리티(reality)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또한, 사용자 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댓글란’이 있기에 해당 콘텐츠는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었다.

상우의 브이로그에서는 제작자, 연기자, 감상자 모두가 이미 그것이 ‘허구’임을 인지한 채 일종의 ‘플레이’를 수행한다. 이를테면 제작진은 영상 설명란에 “김공과 추상우-디지털 미디어의 이해 과제 제출받아 공유합니다”라는 부연 설명을 덧붙여 두는데, 이는 ‘실용성을 추구하는 공대남’이라는 추상우의 인물 특성상 브이로그를 제작할 리 없지만 ‘수업 과제’로 이 영상을 제작했음을 상상하게 한다. 이에 감상자들은 ‘이 브이로그는 과제로 인해 업로드됐다’는 설정 자체를 하나의 축으로 삼고, 드라마를 둘러싼 외부의 텍스트들과 실제 배우의 관계를 재해석한다. “학점을 위해서 뭐든 다 하는 추상우”, “추상우가 브이로그를?! 이견과제가 틀림없다” 등의 댓글을 통해 감상자들이 브이로그를 찍는 것이 불가능한 추상우라는 인물의 특성을 살린 제작진의 의도에 호응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한편, “수상할 정도로 브이로그를 잘 찍는 김공과”라는 댓글은 ‘박재찬’의 브이로그가 추상우 캐릭터와는 맞지 않음을 지적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는 “본격적으로 과제같은 브이로그 찍은 추상우 현실 공대생 포인트”나 “브이로그라서 잉 했다가 컨셉 보고 바로 납득”이라는 댓글에서 드러나듯, 불만이 아니라 차라리 ‘몰입’의 징표에 가깝다.

「시맨틱 에러」의 감상자들은 실제 배우와 드라마의 인물을 교차시키고, 이들의 어긋남을 오히려 해석을 풍부하게 하는 장치로 받아들인다. “상우 극강 j인데 본캐가 p라 누가봐도 p의 계획표처럼 적은거 커엽고(귀엽고) 웃기넵”, “계획 짠 거에서 극 p형 인간인 박재찬이 극j형 인간 추상우를 완벽하게 소화하지 못하게 보여서 너무 귀여움”, “어디까지 장재영이고 어디까지 박서함인지”와 같이, 이들은 드라마 속 ‘상우’의 성격과 “본캐”⁴⁰의 성격을 비교하며 현실과 판타지의 차원을 넘나들며 ‘과몰입-어펙트’를 활성화하였다. 즉, 인물과 배우의 간격은 몰입을 깨는 흠이 아니라 오히려 추가적인 해석을 가능케 하는 ‘틈’으로 의미화되는 것이다.

40 ‘본래의 캐릭터’를 줄인 말이지만, 이 경우 역할을 맡은 배우를 지칭한다.

또한, 이들의 감상은 ‘좋다’ 혹은 ‘나쁘다’에 머물지 않는다. “상우 이거 찍고 기빨려서 존나 폭 잤는데 아침에 알람 울려서 기분 살짝 안 좋아졌을 듯 개귀엽다”라는 댓글은, 브이로그에 추상우가 과제로 브이로그를 찍고 난 이후의 상황까지 덧붙인 것이다. 이는 주어진 이야기 너머의 이야기를 덧붙이는 행위로, 과몰입한 감상자들에게 드라마 「시맨틱 에러」에 얹힌 정동은 ‘공식 제작 이야기’의 여분을 상상하는 일로 표출된다.

이 몰입의 동력은 여러 층위의 텍스트들을 엮어냄으로써 만들어지는 허구적 ‘과잉텍스트’에서 발견된다. 여기서 ‘허구’란 허구적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세계에서 어긋나 존재하는 텍스트를 가리킨다. 앞서 살펴본 ‘추상우 브이로그’는 「시맨틱 에러」 세계관에 어긋나는, 현실에 실재하는 텍스트에 가까울수록 오히려 이 브이로그는 ‘허구’에 가까운, 혹은 허구를 조율하는 놀이가 되며, 「시맨틱 에러」를 허구에서 현실로 더 밀어낸다. 제작사에서 만들어내는 공식 텍스트들은 이들에게 환상이기보다 환상의 재료, ‘허구’ 그 자체이기보다 ‘허구 재생산의 기반’이 된다. 가령 한 팬이 ‘과몰입-어펙트’를 통해 페이크 브이로그의 시리즈물을 다시 이어받아, 자체적으로 제작한 「왓차가 안 줘서 내가 만든 (재영이 형과 함께하는) 추상우 브이로그2」라는 제목의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 되기도 했다.⁴¹

이처럼 「시맨틱 에러」의 감상자들은 단순한 ‘수용자’를 넘어, 텍스트를 읽고 확장하며 ‘과몰입-어펙트’의 산물이자 행위자로 등장한다.⁴² 이들에게 과몰입

41 미남수집가, 「왓차가 안 줘서 내가 만든 (재영이 형과 함께하는) 추상우 브이로그2 #시맨틱에러 #추상우 #장재영 #장주 #삼찬」, 2022.3.13., <https://www.youtube.com/watch?v=ED7Q5Eviohs> (접속일: 2025.10.11)

42 특기할 만한 사실은 이 ‘페이크 브이로그’를 연기한 배우 박서함과 박재찬이 모두 아이돌 그룹 출신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개인 SNS에서도 서로를 향한 애정을 표현한다. 이는 아이돌 산업에서 흔히 확인되는 상업화 전략 중 하나이기도 하다. 아이돌 팬덤에서 익숙하게 느낄 법한 ‘관계의 문법’을 드라마 「시맨틱 에러」의 출연진 역시 수행한 셈이다. 또한, 드라마 「시맨틱 에러」의 팬들은 동시대 아이돌 팬덤 문화의 대표적인 이벤트로 꼽히는 ‘생일 카페’ 운영을 시도하기도 했다. 드라마 「시맨틱 에러」 팬덤과 아이돌 팬덤 문화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권민성, 「동시에 코드 드라마의 수용방식 연구-BL 웹 드라마 <시맨틱 에러>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3 참조.

은 하나의 상태가 아니라, 연결하고, 덧붙이며 만들고 또 관계 맺는 일련의 유동적 실천이다. 이들은 드라마를 넘어 브이로그, 인터뷰, 비하인드 영상, ‘영업용 과잉텍스트’ 등을 가로지르며 텍스트 사이를 유영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의미망을 짜올린다. 이러한 감상은 ‘드라마’라는 한정된 틀 너머로 실제 배우와 등장인물, 공식 콘텐츠와 비공식 콘텐츠, 허구와 현실이라는 이분법을 넘나들며 이루어진다. 「시맨틱 에러」를 둘러싼 ‘과몰입-어펙트’는, 감상자들이 텍스트를 전유하고 변주하며 텍스트 사이 공간에서 (무)의식적으로 연루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4 호모포빅한 세계와의 충돌: 예능 「도시어부」를 둘러싼 반응과 그 이면

「시맨틱 에러」의 ‘동성애’ 서사가 소수자 혐오의 문제성을 소거한 진공적 세계를 빛는 데 성공했는지와는 별개로, 배우들은 혐오가 있는 현실 세계에 위치해 있었다. 이를테면, 주연 배우들은 서로를 향한 애정을 드러내 보이면서도 서로를 좋아하는 모습을 ‘적절히’ 보임으로써 오해를 사지는 말아야 하는 일종의 ‘줄타기’ 상황에 놓여 있었다. 혐오가 만연한 현실에서 BL 드라마 출연 배우는 동성애자로서 정체화할 수도, 동성간 성애의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2022년 9월 10일 방영된 채널A 예능 프로그램 「도시어부」 시즌4 10회(이하 「도시어부」)는 판타지와 현실의 괴리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이다. 드라마가 큰 인기를 얻은 후, 상우를 연기한 배우 박재찬은 예능 「도시어부」에 출연했다. 화제가 된 드라마의 주연 배우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은 일견 자연스러운 일인 듯 보인다. 문제는 「도시어부」가 중장년 남성들이 모여서 ‘남성적 스포츠’인 낚시를 하며 게스트와 이야기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남성 중심적’ TV쇼에 BL 드라마 출연 배우가 등장한 것이다.

이날 방송 중, 가장 문제적인 지점은 박재찬이 자신이 출연한 「시맨틱 에러」를 소개하는 장면이다. 박재찬은 “사실 그렇게 대중적인 장르는 아닌데, BL이라고 남남 로맨스를 다룬”이라고 드라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설명했다. 그러자 「도시어부」의 남성 출연진은 그 의미를 조롱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남남?”이라고 남성 간의 사랑 이야기를 전혀 들어본 적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재찬이 “수근 선배님”과 도시어부에서 짝꿍을 하고 싶다고 하자, mc 중 하나인 이경규가 끼어

들어 “수근인 내거야”라고 하며 뽀뽀하는 행동을 취하는 식이었다.⁴³ 이에 「도시어부」에서 박재찬이 제시하려 했던 BL 드라마의 특징인 ‘남남 로맨스’는 이질적인 요소로 남게 된다.

이러한 장면은 BL 팬덤에게 텍스트 감상에 관한 기본 전제를 깨뜨리는 일로 다가온다. 앞서 논하였듯, 과몰입한 이들에게 ‘기반텍스트’에 외부 텍스트를 더해 몰입하는 과정은 마땅히 거쳐야 할 단계로 여겨지는데, 「도시어부」는 「시맨틱 에러」와 관련된 텍스트임에도 몰입을 깨뜨린 것이다. 「도시어부」는 남성 출연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이다. ‘남남 로맨스’를 웃음거리로 삼는 장면을 통해, 이 쇼가 허용하는 ‘남자들의 관계’란 ‘브로맨스’⁴⁴ 정도라는 사실이 다시금 확인된.⁴⁵ 이러한 ‘관계성’ 제시는 동성 간 가벼운 신체적 접촉이나 애정 표현

43 play 채널A, 「‘시맨틱 에러’의 주인공, 재찬! 재찬이 짝궁하고 싶은 파트너는?! | 도시어부 4 10 회」, 2022.9.10., https://youtu.be/HOACe_S53kA?si=Cis9LhppeeFnDspE (접속일: 2025.11.12.)

44 여기서 브로맨스란, ‘로맨스’가 붙되 로맨스가 아닌, 호모소셜한 남성사회를 다루되 퀴어적 의미는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 주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브로맨스 메커니즘’에 두 차원의 혐오가 뒤섞여 작동한다는 손희정의 지적은 중요하다. 손희정은 “브로맨스가 강조되는 영화들에서 여성인물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짚어냄으로써, 오늘날 대중문화와 한국 정치 판에서 흔히 사용되는 ‘브로맨스’ 전략이 여성을 배제한다는 특성을 지니며 동성에 역시 ‘코드’로만 활용할 뿐임을 비판한다. 손희정, 「촛불혁명의 브로맨스」, 『원본 없는 판타지-페미니스트 시각으로 읽는 한국 현대문화사』, 346쪽 참조. 이에 비해, 「시맨틱 에러」의 주목할 만한 점 중 하나는 나름의 방식으로 여성 인물의 다양성을 확보하려 했다는 것이다. 가령 두 주인공의 곁에는 각각 두 여성 인물이 주요 인물로 배치되어 있는데, 재영의 친한 친구인 ‘유나’는 레즈비언 캐릭터다.

45 사실 「도시어부」의 호모소셜한 조롱은 의도적이기보다 ‘불가피한’ 정동에 가까울 수 있다. 이경규가 이수근에 뽀뽀하는 시늉을 하자, “키갈(?) 작렬 수근이 놓치지 않을 거야♥♥♥♥”라는 문구가 자막으로 나타나고, 다른 출연자가 웃으며 박수를 치거나 얼굴을 가리는 장면엔 “(못 볼 꼴)”이라는 자막이 띄워진다. 이경규가 “도시어부 브로맨스”라고 말하자 제작진도 “도시어부 걱정의 브로맨스”라고 자막을 덧입히며 호응한다. 이들이 하는 ‘조롱’은 문제적이지만, 그렇다고 제작자와 출연진들이 퀴어혐오적인 사회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들이 진지하게 BL을 징그러워한다면 이는 게스트인 재찬을 곤란케 하는 것이고, 반대로 이를 쉽게 긍정한다면 재찬의 시도를 ‘깎아내리는’ 것이며 호모소셜을 파괴하게 된다. 그렇기에 ‘뽀뽀 흥내’를 통해 과잉된 긍정으로 로맨스를 부정하는 행위가 이들에게 적절한 것으로 산정된다.

이 탈성애로 해석될 때에만 허용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도시어부」가 재현한 ‘남성과 남성 간의 관계’는 동성 간 성애적 욕망을 배제시킴으로써 완성되는 호모소셜한 욕망의 결과물이었다.

당시 트위터를 위시한 온라인 공간에서는 해당 대목이 일종의 ‘퀴어혐오’을 바탕에 두고 있음이 지적되었고, 이것이 알려지면서 드라마 「시맨틱 에러」 팬이 아니더라도 「도시어부」의 연출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이 생겨났다. 그렇다면 BL 드라마 「시맨틱 에러」를 둘러싼 ‘과몰입-어펙트’는 ‘퀴어한 문화 실천’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

「도시어부」 방영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업로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한 게시글은 이러한 반응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사례다.⁴⁶ 먼저, 해당 글의 작성자는 「도시어부」의 어떤 부분이 불쾌한지를 지적한다. “남남 로맨스라고 하니까 도시어부 출연진들 // 다들 표정이 썩어가요. 재찬이 ‘대중적이지 않은 장르’ // 라고 에둘러 말했는데도 기분나쁜듯한 표정을 짓는”다는 점을 짚으며, 「시맨틱 에러」의 주연 배우 재찬이 BL장르에 익숙하지 않은 출연진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배려’하며 말했는데도 출연진이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고 이해한다. 이는 앞서 살펴본 소수자 혐오 문제를 지적하는 반응들과 유사하다. 그런데 추가로 살펴볼 대목은 작성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문제적으로 보는 이유다. “재찬이 진짜 도시어부 나가고 현타왔을거 같”다는 것이다. 작성자는 이러한 조롱이 “벨드⁴⁷ 찍었다고 게이취급 당하는게” 문제라고 말한다. BL 드라마를 찍은 사람은 ‘게이’라고 단정하는 것이 무례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게이한테도 사실 ‘여기에 니취향있어’이말은 실례아닌가요?”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의도치 않게 퀴어프렌들리(queer-friendly)한 태도가 나오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작성자는 곧바로 “재찬이는 게이도 아닌데”라고 덧붙인다. BL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는 ‘게이’처럼 조롱받아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가 ‘게이’가 아니기 때문이고, 게이에게도 「도시어부」의 발언은 ‘실례’이겠지만, 여전히 ‘내 배우’는 게이는 아니라

⁴⁶ 이라키 위키, 「도시어부 박재찬 “우리중 니취향 있니?” 조롱하는 이수근 이경규 막말」, 2022.11.13., <https://kirai.tistory.com/589> (접속일: 2025.11.14)

⁴⁷ ‘벨드’란 BL드라마(비엘 드라마)를 지칭하는 줄임말이다.

는 것이다. 정리해 보자면, 작성자는 당시 「도시어부」 측이 보인 BL 드라마에 대한 반응은 배우 개인의 불쾌함을 야기할 수 있기에 문제라 주장한다. 즉 어떤 ‘과몰입’은 동성애 서사에 관한 애정을 기반에 두면서도, 실제 동성애(자)가 놓인 사회적 조건 자체를 되묻는 문제 제기로는 이어지지 않는다. 이 같은 사례는 BL 팬덤의 ‘귀여한 문화 실천’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층적인가를 되짚어보게 한다.

BL 팬덤은 ‘과몰입-어펙트’를 통해 ‘귀여한 실천’을 할 것처럼 기대받곤 하지만, 때로는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이 ‘귀여하지 않은 존재’로 판명받는 데 온 힘을 쏟기도 한다. BL 서사를 구성하는 어떤 요소가 현실의 소수자 혐오와 충돌할 경우, 그러한 혐오의 발생 조건 자체를 문제 삼는 대신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이 경우엔 배우)을 지키는 쪽을 택하곤 한다. 이에 BL 팬덤의 읽기 실천은 페미니즘 문화 분석 맥락에서 비판적으로 검토되기도 했다.⁴⁸

호모포빅한 사회에서 BL 드라마의 배우는 ‘동성애 판타지’를 연기하되, 동성 애자일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드라마 「대도시의 사랑법」의 주인공 역할을 연기한 배우 남윤수의 인터뷰를 살펴보자. 「대도시의 사랑법」은 오늘날 한국의 대표적인 ‘귀여 소설’로 꼽히는 동명의 소설을 드라마화한 작품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 물론 「대도시의 사랑법」은 ‘귀여 서사’를 본격적으로 내세운 드라마이며 원작 역시 ‘순수문학’으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BL 드라마 「시맨틱 에러」와는 다른 조건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례를 통해, ‘남성 간의 성애적 관계’를 연기하는 배우들이 수용자들의 반응을 선제적으로 의식하고 있다는 점은 짚어볼 만하다. 당시 남윤수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에게 “귀여 친구들이 있었고, 처음부터 마음이 열려 있”었다는 점을 밝히며, 그렇기에 자신에게 이 과정은 “어려운 결정도, 어려운 작품도 아니었”다고 말한다.⁴⁹ 이는 물론 ‘귀여프

48 김효진에 따르면, 2018년의 ‘탈BL 논쟁’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1) BL 비판과 옹호 두 입장이 모두 ‘페미니즘’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2) 이 논의가 트위터와 같은 대중적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3) 탈BL의 계기가 ‘내부적 요인’, 즉, 페미니즘적 성찰의 차원에서 제시되었다는 점. 이에 탈BL 담론을 둘러싼 논쟁은 한국 페미니즘 문화사 차원에서 중요하게 기록될 만하다. 김효진, 「페미니즘의 시대, 보이즈 러브의 의미를 다시 묻다: 인터넷의 ‘탈BL’ 담론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47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9, 200-208쪽 참조.

렌들리한’ 답변이지만, 동시에 남성과 남성의 사랑을 연기하는 배우의 곤경을 보여주는 지점으로도 읽힐 수 있다. 호모포빅한 사회에서 ‘커밍아웃’은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는 실천이기에 배우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답은 ‘동성에게 호감을 느껴본 적 있다’는 귀여한 경험보다는 ‘성소수자 친구가 있음’이라는 단편적 ‘엘라이성(allyship)’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마지막으로 각별히 검토하려는 것은 「도시어부」에서 재찬이 보였던 ‘어색한 웃음’의 의미다. 앞서 살펴본 「도시어부」의 문제적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다. 당시 출연진의 반응에 재찬은 남성과 남성 간의 사랑 이야기를 부정하지도, 긍정하지도 못한 채, ‘찡그리면서 웃는 얼굴’로 대처한다. 이는 BL 드라마 출연진의 이중적 위치를 드러내는 지점이다. 앞서 ‘(밀)키스’ 사례를 통해 확인하였듯, 「시맨틱 에러」의 배우들은 동성간 애정을 부정하지 않음으로써 드라마 팬들의 ‘과몰입’에 힘을 보탰다. 하지만 동시에 배우들은 향후 다른 이성애자 캐릭터를 연기해야 해서건, ‘게이 혐오’라는 현실의 문제 때문이건 그러한 애정의 발현을 실제로 행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곤경이 집약된 결과물이 재찬의 ‘어색한 웃음’인 것이다.

한편, 이러한 ‘어색한 웃음’이 배우의 것만은 아니라는 점 역시 짚어보아야 한다. 과몰입한 감상자들 또한 찡그린 채 웃는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맨틱 에러」의 팬덤은 배우들 간의 관계성이 반드시 현실에서도 이어져야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다만, 이들은 드라마와 외부의 텍스트를 과잉되게 연결시킴으로써, ‘특정 주체에 적절치 않게 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⁵⁰ 모두가 동일한 층위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동체에 대한 페미니즘적 상

49 허윤선, 「LOVE NEVER SLEEPS(1)/ 대도시의 사랑법-남윤수 & 권혁」, 『allure』 2024. 9.24, <https://www.allurekorea.com/2024/09/24/love-never-sleeps-%EB%82%A8%EC%9C%A4%EC%88%98-%EA%B6%8C%ED%98%81/> (접속일: 2025.11.14)

50 헬버스탐은 “페미니스트들은 자각을 통해 ‘여성이 되는(becoming)’게 아니라, 모든 의미에서 여성에 ‘적절하지 않게 된다(unbecoming)’”고 말한다. J. 잭 헬버스탐, 이화여대 여성학과 퀴어·LGBT 번역 모임 역, 『가가 페미니즘: 섹스, 젠더, 그리고 정상성의 종말』, 이매진, 2014, 16쪽. 이러한 시도는 퀴어 페미니즘의 맥락에서 ‘되기(becoming)’의 의미를 돌아보게 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상은 차라리 모두 함께 ‘어떤 주체에 적절하지 않게 된다’는 전제에 기대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BL 감상 문화를 논하는 데 있어, 이러한 관점이 유용한 이유는 ‘과몰입-어펙트’가 ‘적절하지 않게 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정상’이라 여겨지는 것들의 구성 배경을 되묻게 하기 때문이다.⁵¹

무엇보다 BL 감상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과몰입-어펙트’가 특정 주체의 목적의식에 기반해 나온 결과물이 아니라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시맨틱 에러」의 감상자들은 각자의 의도와 별개로 오히려 이것이 ‘판타지’이기 때문에 현실의 조건들을 상기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현실의 조건에는 ‘탈BL’ 논쟁을 통한 후에도 BL에 열광하는 ‘감상자-나’ 자신에 대한 성찰, 이성애 규범과 같은 사회적 조건에 대한 고찰 등 다양한 층위의 외부 텍스트가 포함될 수 있다. 「시맨틱 에러」를 둘러싼 ‘과몰입-어펙트’를 페미니스트 비평 차원에서 검토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BL에 대한 과몰입을 바탕에 둔 정동은 현실과 판타지의 관계를 얹히고설킨 것으로 경험하게 함으로써, ‘정상성’ 자체를 질문하게 한다. 이는 ‘야오이’의 독자들이 게이와 실제 삶과 관련없는 욕망일지라도 “규범적 이성애”를 돌아보게 되었다는 주장과도 관련된다.⁵² 오늘날 BL 드라마를 감상하는 이들 역시 자신의 젠더, 섹슈얼리티 정체성 또는 그것을 인식하는 방식과는 별개로 ‘귀여한 어셈블리지(queer assemblages)’⁵³에 ‘이미’ 얹히고설키는(entanglement) 중이다.

51 여기서 논하는 ‘과몰입-어펙트’가 기존 논의에서 논한 ‘남성적 활력 정동(vitality affect)’과는 상반된 성격의 것이라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성적 활력 정동은 “수용소 체제의 대항정동, 즉 관계 정동(relational affect)의 젠더적 차원과 여기에 함축된 생명성과 교차성의 맥락들을 함께 지운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권두현, 「물질적-존재론적 지도 그리기-드라마 한류의 텔레-공화국 또는 수용소 체제」, 『한국예술연구』 32호, 한국예술연구소, 2021, 87쪽.

52 ‘은유’와 ‘실제’ 간의 관계를 고민하며 “마치 ‘야오이’의 남성 캐릭터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이와는 한참 다르지만, 그것과 별개로 기표의 차원에서는 규범적 이성애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은 여성들의 욕망을 날카롭게 반영하는 것” 같다고 본 김대현의 논의는 본 논문에서 사하는 바가 크다. 김대현, 「게이와 페미니즘」, 『문화/과학』 제104호, 문화과학사, 2020, 147쪽.

53 푸아의 ‘Queer assemblages’는 “귀여한 배치들”로 번역된 바 있다. “정체성이 아니라 배치(assemblage)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퀴어 서사에 주목하게 한다는 점에서 푸아의 상상

BL팬덤은 설령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호모포빅한 현실을 고찰하는 과정에 연루(entanglement)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과몰입-어팩트’를 비평하는 시도는 특정 주체로 상상되는 팬덤과 ‘정체성’ 논의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다층적인 관계망 속에서 동성에 서사의 자리를 재배치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을 대신하여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BL 감상 문화는 페미니즘의 분화와 여러 층위의 소수자 혐오 문제가 얹히면서 더욱 복잡한 쟁점의 대상이 되었다. 지난 2018년 ‘탈BL’ 논쟁에서 드러나듯, BL팬덤에는 ‘게이혐오’를 바탕으로 BL을 ‘퀴어한 문화’ 영역에서 분리시키려는 이들 역시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탈BL’론은 남성 동성애 서사와 (주로 ‘여성’으로 가정되는) 독자/수용자/감상자 간의 관계에 대한 다층적 논점을 제공하였다. 동시에 BL팬덤은 안티 페미니즘 진영에서도 비난받았다. ‘여자들도 변태적인 취미를 갖고 있으면서 왜 다른 이들을 비난하냐’는 식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본 논문은 2018년 ‘탈BL’ 논쟁 이후 대중적인 인기를 얻은 왓차 드라마 「시맨틱 에러」를 둘러싼 ‘과몰입’ 현상에 주목하였다.

「시맨틱 에러」에 과몰입한 이들은 기반 텍스트와 외부의 요소를 연결하거나, 다른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드라마의 존재를 알렸다. 한편, 제작진들은 역으로 이러한 팬들의 ‘과몰입’을 모방하는 듯 ‘2차 창작’ 형식의 콘텐츠를 공식적으로 제작해 공개하기도 했다. 「시맨틱 에러」의 주인공 ‘상우’와 ‘재영’이 연극에 임하는 과정에서 ‘허상’과 현실을 교차하며 경험하였던 것처럼, 이 드라마에 과몰입한 이들은 ‘기반텍스트’와 관련된 텍스트를 찾아내고 생산하고 연결하는 등 텍스트들 간의 관계, 나아가 재현의 과정 자체에 연루되었다.

문제는 드라마가 ‘호모포빅한 외부 텍스트’와 엮이게 되면서 발생한다. 대표

은 중요하다. 제스비어 K. 푸아, 「퀴어한 시간들, 퀴어한 배치들」, 『문화과사회』 29권 4호, 문학과지성사, 2016, 113쪽. 이러한 선구적 작업의 의의를 고려하되, 본 논문에서는 배치를 통해 생성되는 관계성의 의미를 강조하고자 ‘퀴어한 배치들’ 대신 ‘퀴어한 어셈블리지(assemblage)’로 옮겨둔다.

적인 사례로 「도시어부」의 연출 방식을 검토하였다. 「도시어부」에 출연한 「시맨틱 에러」의 주연배우 재찬은 ‘BL’의 특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곤란한 질문들을 받게 된다. 배우의 ‘호모소셜한 예능’ 출연이 ‘남성과 남성 간의 관계’가 당연한 것으로 가정해온 BL의 전제를 깨트리는 것이다. 이에 드라마 팬들은 실제 게이들이 비슷한 곤경에 처하는 순간을 상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 배우’를 지키기 위해 ‘게이혐오적’ 뉘앙스가 담긴 발언을 덧붙이기도 했다. BL팬덤은 이처럼 다층적인 성격을 지니기에 때로는 그 내부에서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은 호모포빅한 분위기 속에서 배우가 보인 ‘어색한 미소’를 조명해 보고자 했다. 이때 재찬뿐만 아니라 BL에 빠져든 이들 또한 과몰입하면서도 그것이 ‘과하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나오는 ‘어색한 미소’를 짓게 된다. 이에 본 논문은 어색함이라는 정동이 ‘정상성’ 유지에 균열을 가할 수 있고, 여기에 연루된 이들이 특정 정체성에 ‘적절하지 않게 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현실과 판타지는 다르다’는 말은 BL 팬덤과 관련하여 흔히 쓰이는 명제 중 하나이지만, 이는 오히려 BL을 둘러싼 논쟁 속에서 형성된 과잉된 경계 짓기라 할 수 있다. 「시맨틱 에러」를 둘러싼 과몰입 현상은 이러한 경계를 무력화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였다. 팬들은 ‘기반텍스트’와 외부 텍스트를 끊임없이 연결하며, 배우가 처한 호모포빅한 맥락 속에서 드러나는 ‘어색한 미소’에 감정적으로 연루된다. 이 어색함은 단순한 ‘팬심’의 부산물이 아니라, 호모포빅한 현실에서 ‘헤테로섹슈얼한 체제’가 흔들리는 순간에 발생하는 정동이다. BL 팬덤 내부의 충돌 역시 이 정동의 진동을 반영한다. 결국 BL은 현실과 유리된 ‘안전한 판타지’가 아니라, 현실의 젠더 질서와 섹슈얼리티 규범에 끊임없이 접속하는 재현의 과정이다. 본 연구는 ‘과몰입-어펙트’의 동력을 통해 BL 드라마와 현실의 관계를 재검토함으로써 페미니즘적 상상과 재현의 정치성 논의를 다각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참고 문헌

기본 자료

「시맨틱 에러」(왓차, 2022.2.16.-2022.3.10.), 1-8화

〈시맨틱 에러: 더 무비〉(2022)

왓차, 「추상우 Vlog | 극J형 인간 컴공과 추상우의 코딩 가득한 하루 (근데 이제 쿡방, 먹방, 레고 조립을 곁들인) | 시맨틱 에러 | 왓차」, <https://youtu.be/CRTUVowGP1E> (접속일: 2025.6.28)

제이선, 『시맨틱 에러 대본집』, blackD(블랙디), 2022.

play 채널A, 「「시맨틱 에러」의 주인공, 재찬! 재찬이 짝꿍하고 싶은 파트너는?! | 도시어부4 10 회」, 2022.9.10., https://youtu.be/HOACe_S53kA?si=Cis9LhppeeFnDspE (접속일: 2025.11.12)

미남수집가, 「왓차가 안 줘서 내가 만든 (재영이 형과 함께하는) 추상우 브이로그2 #시맨틱에러 #추상우 #장재영 #장추 #삼찬」, 2022.3.13., <https://www.youtube.com/watch?v=ED7Q5Eviohs> (접속일: 2025.10.11)

씨네 21, 「#CINE21Spaces #시맨틱에러_더무비 제작기 토크」, 『씨네 21』 트위터스페이스, 2022.9.2., <https://twitter.com/i/spaces/1PlKQpvqOWyxE?s=20>, (접속일: 2022.11.17)

이라키 위키, 「도시어부 박재찬 “우리중 니취향 있니?” 조롱하는 이수근 이경규 막말」, 2022.11.13., <https://kirai.tistory.com/589> (접속일: 2025.11.14)

포요, 「드에러 시즌2 소취 기원」, <https://www.postype.com/@clean193177> (접속일: 2025.11.14.)

단행본

김효진, 「보이즈 러브의 문화정치와 ‘여성서사’의 발명-‘야오이’의 수용부터 ‘탈BL’ 논쟁까지」, 오혜진 외, 『원본 없는 판타지-페미니스트 시각으로 읽는 한국 현대문화사』, 후마니타스, 2020.

루인, 「음란과 폭력을 다시 생각한다」. 정희진 엮음, 『양성평등에 반대한다』, 교양인, 2017.

손희정, 「촛불혁명의 브로맨스」, 오혜진 외, 『원본 없는 판타지-페미니스트 시각

으로 읽는 한국 현대문화사』, 후마니타스, 2020.

오혜진, 『지금까지 문학적인 취향』, 오월의 봄, 2019.

J. 잭 헬버스탐, 이화여대 여성학과 퀴어·LGBT 번역 모임 역, 『가가 페미니즘: 섹스, 젠더, 그리고 정상성의 종말』, 이매진, 2014.

피터 브룩스, 이승희, 이혜령, 최승연 옮김, 『멜로드라마적 상상력-발자크, 헨리 제임스, 멜로드라마, 그리고 과잉의 양식』, 소명출판, 2013.

Barad, Karen, *Meeting the Universe Halfway: Quantum Physics and the Entanglement of Matter and Meaning*,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07.

논문

강다겸, 「여성들의 아이돌 RPS 향유와 머뭇거림의 정동」,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25, 1-118쪽.

강신규·이준형, 「생산과 소비 사이, 놀이와 노동 사이〈프로듀스 48〉과 팬덤의 재구성」, 『한국언론학보』 63권 5호, 한국언론학회, 2019, 269-315쪽.

권두현, 「물질적-존재론적 지도 그리기-드라마 한류의 텔레-공화국 또는 수용소 체제」, 『한국예술연구』 32호, 한국예술연구소, 2021, 75-97쪽.

권명아, 「『오징어 게임』 어펙트, 마주침의 윤리와 연결성의 에톨로지」, 『석당논총』 82호, 석당학술원, 2022, 125-170쪽.

_____, 「수치스런 몸의 역사: 보이지 않는 역사적 원천과 풍속 통제의 자연화」, 『민족문학사연구』 66호,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8, 257-288쪽.

권민성, 「동성애 코드 드라마의 수용방식 연구-BL 웹 드라마 〈시맨틱 에러〉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3, 1-157쪽.

김대현, 「게이와 페미니즘」, 『문화/과학』 제104호, 문화과학사, 2020, 135-151쪽.

김민지, 「신유물론을 통한 페미니스트 재현학의 방향성 고찰: 여자 아이돌 AOA의 〈너나 해〉(2019)를 중심으로」, 『과학기술학연구』, 21권 3호, 한국과학기술학회, 2021, 174-199쪽.

- 김세연, 「BL물 속 트랜스 아이덴티티, 그리고 성장-〈시맨틱 에러〉」, 『컬투라』 109호, 2023, 68-71쪽.
- 김소원, 「BL 만화의 탈19금과 대중화 전략: 여성 독자 심리와 일본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63호, 인문콘텐츠학회, 2021, 235-255쪽.
- 김예란, 「플랫폼 생산자와 일상성: 일상 브이로거의 삶과 노동」, 『한국언론정보학보』 101호, 한국언론정보학회, 2020, 153-199쪽.
- 김효진, 「페미니즘의 시대, 보이즈 러브의 의미를 다시 묻다: 인터넷의 ‘탈BL’ 담론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47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9, 197-227쪽.
- 류진희, 「젠더화된 메타서사로서 한류, 혹은 K-엔터테인먼트 비판—여성 팬, 걸 그룹, 그리고 여성 청년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6권 2호, 대중서사학회, 2020, 9-37쪽.
- 박현아·이나은, 「탈코르셋을 그만둔 여성들: 동일시의 정치와 물화된 얼굴을 넘어서」, 『문화와 사회』 31권 1호, 한국문화사회학회, 2023, 89-148쪽.
- 손희정, 「페미니즘 리부트: 한국 영화를 통해 보는 포스트-페미니즘, 그리고 그 이후」, 『문화과학』 제83호, 문화과학사, 2015, 14-47쪽.
- 송화·박기수, 「BL 웹소설의 드라마 전환 전략 연구: 왓챠 드라마 〈시맨틱 에러〉를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70호, 인문콘텐츠학회, 2023, 109-131쪽.
- 이가현·류호현, 「동아시아 SF X BL 서사의 트랜스-휴머니즘적 상상력과 젠더·섹슈얼리티 실험」, 『중국소설논총』 67호, 한국중국소설학회, 2022, 495-517쪽.
- 이나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유사-초점화된 상호작용과 친밀감의 의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1-126쪽.
- 이대원, 「담화와 정동의 공동체로서의 아이돌 팬덤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1-160쪽.
- 장민지, 「서브텍스트 활성화를 통한 BL(Boys' Love)콘텐츠 대중화 전략: 왓챠 오리지널 〈시맨틱 에러〉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2권 11호, 한국콘텐츠학회, 2022, 713-723쪽.
- 재스비어 K. 푸아, 「퀴어한 시간들, 퀴어한 배치들」, 『문학과사회』 제29권 제

4호, 문학과지성사, 2016.

Coleman, Rebecca, “Inventive Feminist Theory: Representation, Materiality and Intensive Time”, *Women: A Cultural Review*, Vol.25, no.1, 2014, pp.27-45.

기타 자료

김나연, 「‘시맨틱 에러’ 감독 “BL 드라마, 쉬운 접근 위해 노력했죠”[★FULL인터뷰]」, 『스타뉴스』, 2022.3.13., <https://www.starnewskorea.com/stview.php?no=2022030818264354456> (접속일: 2025.11.14)

김도훈, 「양지로 나온 ‘BL’…퀴어 서사 대중화, 그 거대한 변화의 시작」, 『한겨레』, 2022.3.31., 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036941.html (접속일: 2025.7.14.)

노이슬, 「[인터뷰①] ‘시맨틱 에러’ 김수정 감독 “박서함-박재찬 만난 건 행운이었다”」, 『SWTV』, 2022.03.11., <https://swtvnews.com/news/newsview.php?ncode=1065552414441347> (접속일: 2025.10.11.)

장민지, 「BL(Boys Love)장르와 문화적 파급력」, 『시사저널e』, 2022.3.16. <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59409>(접속일: 2025.7.14)

허윤선, 「LOVE NEVER SLEEPS(1)/ 대도시의 사랑법-남윤수 & 권혁」, 『allure』 2024.9.24, <https://www.allurekorea.com/2024/09/24/love-never-sleeps-%EB%82%A8%EC%9C%A4%EC%88%98-%EA%B6%8C%ED%98%81/> (접속일: 2025.11.14)

Henry Jenkins, “Textual Poachers Turns Twenty!”, 2012.11.26., <https://henryjenkins.org/blog/2012/11/textual-poachers-turns-twenty.html> (접속일: 2025.11.15)

Abstract

Affective Entanglements in the Fandom of the BL Drama *Semantic Error* (2022)

Kim Minji(Seoul National University)
Lee Naeun(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affective dynamics of BL drama fandom through a feminist cultural criticism framework, focusing on the narrative formation of *Semantic Error* (2022), a Korean drama that gained mainstream popularity in the wake of the 2018 “Tal-BL” (Leaving BL) discourse in Korea. The affect surrounding *Semantic Error* emerged primarily in online spaces and was closely tied to practices of intense emotional immersion. While the drama’s success has often been attributed to its status as a “safe fantasy,” this study situates such interpretations within the broader historical context shaped by the Tal-BL discourse. The adaptation of *Semantic Error*—which removed the original novel’s explicit sexual content and was reproduced as a ‘suitable-for-age-12’ drama—prompted conflicting explanations regarding its widespread appeal. Yet when attention is directed to the phenomenon of “over-immersion affect,” it becomes evident that the drama’s affective force operates beyond the boundaries of the “safe fantasy.” To analyze the cultural practices of *Semantic Error*’s fandom, this study proposes the concept of exmersion-affect, which highlights how affect is continually regenerated rather than simply delivered in a one-way narrative structure—from creator to reader/viewer—. Grounded in the new materialist feminist idea of entanglement, we argue that affect emerges through non-linear, ongoing relational processes rather than through a linear model of narrative transmission. By positioning *Semantic Error* within the tension between the Tal-BL discourse and the appeal of safe fantasy, this study diversifies the analytical frameworks of BL drama affect studies and suggests a non-linear, entangled understanding of text-audience relations through the lens of exmersion-affect.

Key words: Tal-BL discourse (Leaving BL discourse), K-drama fandom, BL fandom, on-line fandom, fan culture, affect, entanglement

논문제출 / 2025.11.15.
논문접수 / 2025.11.16.
게재확정 / 2025.12.08.